▶'케인 없어도 손흥민 홀로 빛났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단단히 복수를 다짐했지만,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또 한 번 악몽을 경험했다. 맨시티전 개인통산 7호 골을 폭발시킨 손흥민은 제이미 바디(레스터시티·9골)에 이어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의 맨시티를 상대로 2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

● '절친' 케인 없어도 빛난 손

이 경기의 최대 변수는 손흥민의 '단짝'이자 잉글랜드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의 결장이었다. 2020유럽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케인은 프리시즌을 건너뛴 채 13일에야 팀 훈련에 합류했다.

표면적 이유는 '컨디션 난조'와 '준비 부족'이었지만, 맨시티는 민감한 상대였다. 꽤 오래 전부터 토트넘과 계약연장 대신 이적 의사를 밝힌 케인에게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온 팀이 맨시티다. 잠시 구단간 협상이 답보 상태라고는 하나, 케인 영입에 가장 근접한 팀이라 토트넘은 케인의 개막전 출전 여부를 놓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손흥민에게도 케인은 몹시 소중한 존재다. 지난 시즌 함께 만든 14골은, 역대 EPL 단일시즌 최다 합작골 기록이다. 서로가 해결사로, 때로는 미끼 역할을 수행하며 상대 수비진을 허물고 숱한 골과 찬스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다. 시기가 문제일 뿐 이미 토트넘에서 마음이 떠난 케인과 올 여름 재계약을 결정한 손흥민이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맨시티전 결승골은 단짝 없이도 손흥민이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음을 입증한 장면이다.

● 누누 산투 감독에게도 최고의 카드로!

손흥민에게 누누 이스피리투 산투 신임 감독은 토트넘에서 3번째 사령탑이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PSG)을 이끄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아르헨티나)과 조세 무리뉴 감독(포르투갈)을 거쳐 산투 감독과 7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뒷문을 단단히 구축한 뒤 빠른 역습으로 찬스를 엿보는 패턴을 즐겨 구사하는 누누 산투 감독과 손흥민의 궁합은 현지에서도 큰 관심사였다. 케인의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코리안 에이스'의 활약은 굉장히 중요했다.

첫 결정은 최전방 원톱에 세우는 '손톱' 카드였다. 프리시즌부터 준비한, 일찍이 예고된 수순이지만 폭발적 스프린트와 빠른 스피드, 안정적 볼 키핑, 날카로운 킥 감각을 두루 갖춘 손흥민 이상의 역할을 해줄 다른 공격수는 없었다.

손흥민은 결과로 보여줬다. 주 포지션인 왼쪽 윙 포워드가 아닌 최전방에서도 충분히 번뜩였다. 경기 전 "에너지가 넘치는 손흥민은 다재다능하다"고 기대했던 누누 산투 감독은 맨시티를 격파한 뒤 "손흥민은 킬러다. 엄청난 잠재력을 갖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거리두기4단계에도 한국영화 '쌍끌이 관객몰이'

'1000만 흥행'만큼 값진 '성적표'

올해 첫 100만 돌파한 '모가디슈'
300만 눈앞…전체 흥행 1위 도전
'싱크홀' 올 한국영화 최단 100만↑
18일 개봉 '인질' 예매율 1위 기대

영화 '모가디슈'와 '인질', '싱크홀'(위부터 시계방향)이 잇따라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NEW·쇼박스

기록, 기록, 또 기록이다.

여름시즌 한국영화 기대작들이 그야말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신규 개봉작과 함께 당분간 분위기를 이끌 것으로 보여 극장가에 작게나마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록을 다시 써가며 관객몰이에 나선 '싱크홀'과 '모가디슈', 개봉을 앞둔 '인질'이 실시간 총 예매율 70%에 육박하는 수치로도 활기를 모으고 있다.

● 다시 쓰고 다시 쓰는 기록

기록을 이끈 작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 속에서 7월28일 개봉한 '모가디슈'(감독 류승완·제작 외유내강)였다. 12만6000여명(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불러 모아 올해 한국영화 개봉 첫날 최다 관객수를 기록했다. 뒤이어 7일째인 이달 3일 올해 개봉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누적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이런 기세로 13일 2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는 광복절인 15일과 대체휴일인 16일까지 연휴기간을 지나며 누적 2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모가디슈'는 294만2000여명의 '블랙 위도우'의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어 11일 개봉한 '싱크홀'(감독 김지훈·제작 타워픽쳐스)도 첫날 14만7000여명을 동원하며 '모가디슈'를 뛰어넘었다. 또 '모가디슈'보다 하루 앞선 개봉 6일째(16일) 전국 누적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110만 관객에 다가섰다.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최단기 100만 관객 기록으로, '모가디슈'와 함께 '쌍끌이' 관객몰이에 성공했다.

● 8월의 희망, 9월 추석 연휴까지

이는 18일 개봉하는 '인질'(감독 필감성·제작 외유내강)의 흥행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인질'은 16일 오후 4시30분 현재 31%의 실시간 예매율로 1위로, '싱크홀'과 '모가디슈'의 개봉 전 실시간 예매율과 엇비슷한 수치이다. 각각 상영 2주차와 4주차에 접어드는 '싱크홀'(18%)과 '모가디슈'(14%)도 만만치 않은 성적으로 2위와 3위에 올랐다. 세 편의 예매율을 합치면 70%에 육박하는 수치여서 당분간 한국영화의 박스오피스 1~3위 유지가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도권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3단계 지역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대작들의 성적은 '1000만 관객보다 소중하다'는 시선까지 낳고 있다. 4단계에 따라 영업이 밤 10시로 제한되는 수도권에 전체 극장의 절반가량이 몰려 있어 관객 동원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런 시선은 더욱 힘을 얻는다.

이제 관심은 한국영화의 향후 선전 여부로 쏠린다. 특히 영화계와 극장가는 여느 해보다 이르게 시작되는 추석 연휴(9월18~22일)까지 한국영화의 활약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50m 폭풍 드리블…해트트릭 자축쇼…SON의 잊지못할 첫 골 히스토리

〈2018년 11월 25일〉 〈2020년 9월 21일〉

2018~2019시즌 13R서 지각 첫 골
토트넘 첫 UCL 결승행 이끌어 반전
2020~2021시즌엔 첫 골 포함 4골

손흥민(29·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진출 이후 가장 빠르게 첫 골을 터뜨리며 역대급 시즌을 예고했다.

손흥민은 16일(한국시간)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시티(맨시티)와 2021~2022시즌 EPL 1라운드 홈경기에 원톱으로 선발출전해 후반 10분 선제 결승골을 터트려 토트넘에 1-0 승리를 안겼다. 토트넘 합류 이후 가장 빠르게 뽑은 시즌 첫 골이다.

손흥민 EPL 시즌별 리그 첫 골

시즌	1호골 라운드	상대팀	경기결과
2015~2016	6(5라운드 데뷔)	크리스털 팰리스	1-0 승
2016~2017	4	스토크시티	4-0 승(2골)
2017~2018	9	리버풀	4-1 승
2018~2019	13	첼시	3-1 승
2019~2020	5	크리스털 팰리스	4-0 승(2골)
2020~2021	2	사우샘프턴	5-2 승(4골)
2021~2022	1	맨체스터 시티	1-0 승

손흥민은 2015년 8월말 레버쿠젠(독일)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9월이 돼서야 경기에 투입됐다. 9월 18일 카라바흐(아제르바이잔)와 2015~201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조별리그 경기에서 2골을 넣어 이적 후 첫 골을 신고했고, 20일 6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EPL 데뷔골을 터트렸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참가한 손흥민은 2016~2017시즌 초반 결장했지만, 첫 출전 경기인 2016년 9월 10일 EPL 4라운드 스토크시티전에서 2골·1도움을 올렸다. 완전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한 2017~2018시즌에는 2017년 9월 13일 도르트문트(독일)와 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1차전에서 시즌 첫 골을 넣었고, 리그 첫 골은 10월 23일 9라운드 리버풀전에서 뽑았다.

2018~2019시즌의 손흥민은 EPL 진출 이후 가장 늦게 시즌 첫 골을 터트렸다.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그는 좀처럼 골을 넣지 못해 위기설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나 2018년 11월 25일 13라운드 첼시전에서 중앙선부터 약 50m를 질주한 끝에 골을 뽑아 반전을 이뤘고, 이후 활약을 바탕으로 토트넘 역사상 최초의 UCL 결승 진출과 준우승에 앞장섰다.

대체불가선수가 된 손흥민은 2019년 9월 14일 5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2골을 넣어 2019~2020시즌 첫 득점을 신고했다. 2020~2021시즌 첫 득점은 2020년 9월 21일 2라운드 사우샘프턴전에 나왔는데, 이날 4골을 퍼부어 EPL에서 첫 해트트릭을 작성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김시우, 6명 연장접전 끝 준우승' 1면에서 이어집니다

키스너는 2차 연장에서 1.5m 퍼트를 홀컵에 떨구며 홀로 버디를 낚아 2019년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델 테크놀로지 매치 플레이 이후 2년 만에 통산 4승을 수확했다. 우승상금은 115만2000달러(13억4000만 원).

지난주 열린 WGC 페덱스 세인트 주드 인비테이셔널 파3 홀에서 '데큐플 보기(decuple bogey·한 홀 10타 오버)'인 13타를 쳐 PGA 투어 사상 파3 최다 타수 신기록(메이저대회 제외)이라는 불명예를 썼던 김시우는 일주일 만에 악몽을 떨쳐내고 페덱스컵 포인트 랭킹 30위로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출전을 확정했다.

플레이오프는 20일 개막하는 1차전 노던 트러스트, 27일 열리는 2차전 BMW 챔피언십, 그리고 9월 3일부터 펼쳐지는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으로 이어진다.

강성훈(34)은 윈덤 챔피언십을 합계 13언더파 공동 15위로 마쳤고, 임성재(23)와 이경훈(30)은 합계 11언더파로 나란히 공동 24위에 위치했다. 안병훈(30)은 9언더파 공동 35위에 그쳤다.

플레이오프 진출 희비도 엇갈렸다. 임성재는 페덱스컵 랭킹 31위, 이경훈은 34위로 플레이오프 티켓을 손에 넣었지만 강성훈과 안병훈은 125위 안에 들지 못해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됐다.

플레이오프는 노던 트러스트에 페덱스컵 랭킹 상위 125명이 나서고 BMW 챔피언십 70명, 투어 챔피언십 30명 등으로 출전 인원을 순차적으로 줄이며 진행된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